

No.75
May 31 2019

월간

극지해소식

북극 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국가 정책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남극 소식

이슈 분석

본 소식지는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 일환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게재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추가 자료가 필요한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간수 최재선 명예연구위원
연락처 : 이슬기 051)797-4768(sjlee84@kmi.re.kr)
책임 김민수 극지연구센터 센터장

작성 김지혜, 이슬기, 김지영, 조용성, 이동은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북극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북극 이사회·북극 경제이사회 MOU 체결 (2019. 5. 6.)

2017년 북극 이사회 각료회의에서 8개 북극 회원국 장관들은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한바 있음, 이에 5월 6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개최를 계기로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 사무국은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각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사업을 모색하기로 함.

(<https://arctic-council.org/index.php/en/our-work2/8-news-and-events/520-signs-memorandum>)

북극 이사회, 제11차 각료회의 개최 (2019. 5. 7.)

북극 이사회가 5월 7일 8개 회원국의 장관급 대표와 원주민 단체로 구성된 상시참여단체 대표, 6개 워킹그룹 의장, 옵서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간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제11차 각료회의를 개최했음.

이 각료회의에서 아이슬란드가 핀란드로부터 의장국직을 넘겨받았으며, 북극 8개 회원국 간의 합의 실패로 그간 채택됐던 '공동 선언문(Joint Declaration)' 대신 '장관 공동성명서(Joint Statement)'와 '핀란드 의장성명서(Statement by the Chair)'가 채택되었으며, 국제해사기구(IMO)가 신규 옵서버로 승인됐음.

이날 회의에서 아이슬란드는 2021년 5월 제12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까지 2년 동안 수행할 사업 가운데 1) 북극해양환경(Arctic Marine Environment), 2) 기후와 녹색에너지 솔루션(Climate and Green Energy Solution), 3) 북극 주민과 사회(People and Communities of the Arctic), 4) 북극이사회 기능 강화(Stronger Arctic Council) 등 4가지를 최우선 과제로 제안하였음.

(<https://arctic-council.org/index.php/en/our-work2/8-news-and-events/521-arctic-council-ministers-meet-pass-chairmanship-from-finland-to-iceland>)

북극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제11회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의 공동선언 채택 실패 (2019.5.8.)

5월 7일 핀란드 북부의 로바니에미에서 폐막된 제11회 북극 이사회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반대로 북극이사회 23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동선언 채택에 실패하였음.

핀란드방송공사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다른 회원국들과 의견을 일치하지 못하였으며,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공동선언 초안을 거부하였음. 의장국인 핀란드는 공동선언 대신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타개할 것을 제안하였음.

회의 종료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핀란드 외교부장은 새로 기초된 성명은 7일 새벽에서야 원고가 마무리되었으며, 북극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건설적 협력의 수호를 거듭 천명하였을 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음.

한편 핀란드는 이와 별개로 회의에 참여한 대표들의 서명을 요하지 않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기후변화가 북극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으며, 공동선언 채택 실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 이누이트 극지위원회 의장은 오늘날 기후변화의 존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기후변화는 이미 기정사실로서 그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 및 행동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였음. 핀란드 라플란드 대학 북극연구센터의 한 연구원은 이번 회의에서 북극이사회 회원국들 간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드러났으며, 미국정부가 기후변화의 사실을 부인한 것은 기타 북극국가들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음.

(http://www.xinhuanet.com/2019-05/08/c_1124463885.htm)

북극소식

북극이사회/국제기구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 빙상 실크로드 건설에 북극 국가의 공동참여 강조 (2019. 5. 13)

5월 12일 북극씨클포럼 이사장이자 아이슬란드의 전 대통령 올라퓌르 그림손(Ólafur Grímsson)은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에서 열린 강연을 통해 북극지역의 신항로와 가스유전 자원, 기후변화, 해양생물 등이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며 중국이 건설적인 태도로 북극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4월 9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국제북극포럼 개최, 5월 6일~7일 핀란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개최, 5월 10일~11일 북극씨클포럼 중국포럼이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등 최근 북극관련 국제회의가 연이어 세 차례 개최되면서 전 세계의 이목이 북극에 쏠리고 있음.

그림손은 이러한 회의 및 포럼의 개최는 북극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중시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5년 전까지도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고 강조하였음. 그는 중국의 북극참여에 대한 미국 국무장관 폼페이오의 부정적 발언과 관련하여 북극씨클 중국포럼의 상하이 개최와 “빙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제안이 폼페이오의 지적에 대한 최선의 답변이라는 입장을 밝혔음

그림손은 북극지역이 인류의 미래에 중요한 이유로서 기후온난화에 따라 북극해빙(海氷)이 점차 소실되면서 일부 항로의 경제적 가치 부상과 함께 지정학적 지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북극지구의 풍부한 가스자원 및 광물자원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구조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북극지역의 기후변화와 해빙상황이 인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음.

그림손은 이처럼 북극지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북극사업에 대한 각국의 참여가 점차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또 북극이사회의 8개 정식회원국과 기타 옵서버 국가들을 설명하고, 북극씨클포럼은 중국과 독일, 일본 등 옵서버 국가들의 참여를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https://k.sina.com.cn/article_1914880192_7222c0c002000kdv4.html)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활동 견제 (2019. 5. 6)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열린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전날 연설을 통해 미국은 북극에서의 중국과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태(aggressive behavior)”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북극권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특히, “북극지역의 풍부한 석유·가스·광물·수산자원으로 인해 글로벌 경쟁의 장이 되었다”고 하면서 “북극이 대자연의 지대라고 해서, 무법천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타 지역에서의 중국의 공격적인 행태는 북극에 대한 중국의 태도를 알려 준다”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나섰음.

더 나아가 “북극해가 군사화와 영유권 경쟁으로 점철된 또 하나의 남중국해로 변모하는 것을 원하는가?”라고 물으면서 “중국은 북극이사회의 옵서버 지위를 가지고 있고 중국의 최북단 지역은 북극으로부터 1,450km 떨어져 있으며, 북극권 국가와 비북극권 국가만 있지 제3의 구분은 존재하지 않다”며 “근 북극국가(near-Arctic state)”라고 자처하는 중국을 겨냥하며 중국은 북극에 대한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해서도 북극권을 군사화하려 한다며 비난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여 “북극에서 군사훈련을 개최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쇄빙선을 건조하고, 해양경비대의 여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음.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may/06/pompeo-arctic-activity-new-south-china-sea>)

트럼프 행정부, ANWR 유전개발지 광구 경매 예정 (2019. 5. 31.)

미 내무부 관계자는 수개월 내에 트럼프 행정부가 ANWR(Arctic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유전개발지 광구 경매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음.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2월 내무부의 국토관리부에서 발표한 ‘ANWR 연안임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이 아마도 8월에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내무부는 결정기록과 광구경매에 대한 공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서 경매는 2019년에 추진될 것이라고 함.

환경론자들은 물론 캐나다 정부도 트럼프 행정부가 ANWR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속도나 방식에 대해 비난했으며, 캐나다 정부는 ANWR의 개발이 알래스카와 캐나다 국경을 넘나드는 카리부 무리에 미칠 영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요청했음.

(<https://www.arctictoday.com/trump-administration-will-hold-arctic-refuge-oil-lease-sales-this-year-official-says/>)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캐나다

캐나다 트뤼도 총리, 중국의 북극참여 환영의사 밝혀 (2019.5.12)

영국 BBC의 중국어판은 캐나다 정부가 북극문제에 대한 중국의 참여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미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고 보도하였음.

BBC 보도에 따르면 트뤼도정부에서 주요 외교업무를 역임하였던 앤드류 레슬리(Andrew Leslie) 의원은 지난 5월 10일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북극지역 협력 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캐나다는 북극지역에서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이 같은 캐나다의 입장은 지난 5월 6일 핀란드에서 개최된 제11회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미국 국무부장관 폼페이오가 발표한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됨. 폼페이오는 중국은 북극국가가가 아니며 북극문제에 있어 어떠한 권리도 갖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미국은 중국이 과학연구를 빌미로 북극지역에서 군사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음.

BBC 중국어판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가 중국에 호의적인 것은 미국에 대한 불만과 무관하지 않으며, 미중무역전쟁의 희생물이 되지 않겠다는 캐나다의 심리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협력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9-05/14882053.html>)

캐나다, 북극중앙해 공해 비규제어업방지 협정 비준 (2019. 5. 29)

캐나다가 향후 16년간 북극 중앙해 공해에서 상업적 어업활동을 금지하는 북극중앙해 공해상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 협정)을 비준했음.

이 협정은 2018년 10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국이 서명했는데, 모든 서명당사국의 비준이 있어야 발효되며, 현재 캐나다, EU 러시아가 비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북극 전문가들은 이 협정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 간 협력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음.

한편 5월 28~29일 이틀 동안 캐나다 오타와에서 제1차 CAOF 협정 서명국 준비회의가 개최되었음.

(https://globalnews.ca/news/5332255/high-arctic-fishing-canada/?fbclid=IwAR3kR7wy37LUdUgGkTwdX_57Q0SzfzKNUS9s5iRiy8YVuE2v-0-Cs8X46Jc)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캐나다

캐나다, CLCS에 대륙붕 연장 신청서 제출 (2019.5.30.)

캐나다 정부는 북극점을 포함한 46만 제곱마일 크기의 북극 대륙붕을 확장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포함된 2천 페이지가 넘는 대륙붕 연장 신청서를 유엔 대륙붕한계 위원회(CLCS)에 제출했음.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은 대륙붕이 200해리를 넘어서 자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관할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됨.

캐나다 신청서에 포함된 로모노소프 해령은 이전 러시아와 덴마크가 제출한 CLCS 신청서에도 포함된 곳으로, 이와 같이 국가 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통상적으로 CLCS가 고려 조차하지 않지만, 이번 경우에는 3개국 모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CLCS가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권고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음.

캐나다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작업을 10여 년 전 시작했으며, CLCS가 각 국의 신청서를 검토하는데 10여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극점 주변에는 환경변화에 따라 개발될 수 있는 천연자원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북극 연안국들의 북극 대륙붕 확장을 위한 노력은 “상징적”인 것에 더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음.

(<https://www.arctictoday.com/like-denmark-and-russia-canada-says-its-extended-continental-shelf-includes-the-north-pole/>)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러시아

러시아 외무부, “북극 협력에는 대립도, 편가르기도 관심” (2019. 4. 25)

니콜라이 코르추노프(Nikolai Korchunov) 러시아 외무부 북극이사회 특임대사는 4월 24일 “북극에서의 국제협력: 러시아의 입장”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외부 옵서버 국가를 포함한 이해 당사국 모두는 협력에 있어 대립과 편 가르기, 긴장유발 방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음.

아울러 코르추노프 대사는 “현재 러시아는 다수의 국가들과 ‘야말 LNG’, ‘북극 LNG-2’ 등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프로젝트 및 인프라, 물류, 조선, 해운, 건축 등의 기반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학문, 교육, 환경보호 분야에까지 협력의 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음.

(<https://ru.arctic.ru/news/20190425/849722.html>)

실루아노프 재무장관,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에 관심 (2019. 4. 25)

안톤 실루아노프(Anton Siluanov) 제1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일대일로(一帶一路) 포럼’ 세션에서, “러시아는 아시아 발 유럽 행 남북 화물운송라인 건설과 해양 경제 공간 개발을 목표로 하는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최근 러시아는 북극항로 사용을 더욱 활성화 하고 목표 수치를 달성했지만, 제3국들은 단지 2%의 화물만 북극항로 경유용으로 이용하고 있음. 때문에 실루아노프 부총리는 북극항로를 활용한 유럽 행 경유 시 최대 2주까지 단축되었다는 점을 들며, 러시아의 경유 루트가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부총리는 “현재 러시아는 인프라 사업 외에도 북극항로에서 투자유치, 재정지원, 정부-기업 간 협력 및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완비 및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또한 빙상 실크로드의 철도 및 도로인프라 개선사업 등 러-중 양국과 일대일로 참가국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https://ru.arctic.ru/news/20190425/849758.html>)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
북극이사회 각료
회의 참석.
“러시아 북극항로
안전 보장”
(2019. 5. 7)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외무장관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된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면담하였음. 라브로프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과 북극항로에 대해 논의한 것은 아니었다며, 북극해 연안국으로서 국제법에 의거 북극항로의 안전보장에 책임을 다할 것을 논의하였을 뿐”이라고 발표하였음. 아울러 장관은 1982년 유엔해양법에 근거하여 항로를 이용하는 모든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함께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일전에 러시아의 북극항로 프로젝트와 중국의 빙상 실크로드 계획의 연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바 있음. 그 외에도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 측의 자국 북극해 영해 루트를 이용하는 외국 선박에 대한 허가제의 위법성을 언급하며, 러시아의 북극 국경 강화 조치에 대해 “공격적인 행동”이라고 규정하였음.

(http://www.arctic-info.ru/news/politika/Lavrov_v_Rovaniemi_Rossiya_budet_obespechivat_bezопасnost_Severnogo_morskogo_puti/)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중국

중국 외교부,
북극이사회
각료회의 공동선언
채택 실패에 유감
표시
(2019. 5. 8.)

중국 외교부 대변인 경쌍(耿爽)은 5월 8일 진행된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제11회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의 공동선언 채택에 실패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음.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기타 회원국들 간 기후변화문제에 관한 이견 조율에 실패하여 제11회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공동선언 채택이 무산되었으며, 이는 북극이사회 23년 역사상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음.

경쌍은 북극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 및 취약한 자연생태환경으로 인하여 기후변화와 전세계 온난화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북극의 환경보호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하다고 발표하였음.

경쌍에 따르면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중국이 채택한 감축조치는 북극의 기후생태환경을 보호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중국은 관련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정치적 합의를 공고히 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기후변화가 북극에 가져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중국은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서명 및 발표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경쌍은 “비교해보면 ‘파리협정’을 탈퇴한 것이 누구이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저해하는 것이 누구인지 전세계가 분명히 목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http://www.xinhuanet.com/world/2019-05/08/c_1124468643.htm)

상하이 해양대학,
극지연구센터 설립
(2019. 5. 9.)

5월 9일 상하이해양대학 극지연구센터가 정식 설립되었음. 이는 상하이해양대학이 극지과학탐사 및 국제협력, 과학연구의 기반을 다져 극지사업의 주요 성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극지의 발전에 중국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해양운명공동체 건설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짐.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 그람손과 스웨덴 외교부 북극사무대사, 북유럽각료이사회 국제사무 고위고문, 중국 북극특별대사 가오핑(高风), 자연자원부 극지과학탐사반 천단홍(陈丹红) 부주임 등이 현판식에 참석하였음.

최근 상하이해양대학은 남북극연구 및 과학탐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극지 과학탐사 및 생물 자원조사에 참여하는 인원이 대략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짐. 상하이해양대학은 세계 각국과 극지연구에 관한 교류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극지연구센터는 극지해양 생태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핵심 부문으로 하여 극지기후 환경, 극지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 극지정책 및 법률 등의 부문에서 인재를 키울 예정임. 앞으로 호주, 일본, 미국, 싱가포르, 한국, 유럽 각국 등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 극지연구 및 국제협력의 측면에서 국내 최고의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을 밝혔음.

(<https://www.shou.edu.cn/2019/0510/c147a245116/page.htm>)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중국

북극씨클 중국포럼, 상하이에서 개최 (2019. 5. 11.)

5월 10일에서 11일까지 이틀간 중국 자연자원부 및 북극씨클포럼이 공동 주최한 북극씨클 중국포럼이 상하이에서 개최되었음. 자연자원부 국가해양국 왕홍(王宏)국장은 개막식에서 “북극협력 및 빙상실�크로드 공동건설 실무추진”에 관한 강연을 하였으며,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자 북극씨클포럼 이사장인 올라퓌르 그림손(Ólafur Grímsson)과 상하이시 당무부시장 천인(陈寅)이 축사를 하였음.

왕홍은 강연에서 북극과 35 위도 이상 떨어진 상하이에서 이번 포럼이 개최된 것은 북극에 대한 국제사회의 참여에 제한이 없으며 극권에서도 이를 배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힘. 그에 따르면 북극현안은 특히 북극의 기후변화 및 환경보호, 과학연구, 항로이용 등의 문제를 비롯하여 북극지역 원주민의 복지 및 전인류의 생존 및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왕홍은 중국이 북극업무의 중요 이해관계국으로 오랜 기간 《UN헌장》 및 《UN해양법협약》, 《스피츠베르겐 협약》 등 국제조약과 일반 국제법을 존중해왔으며, “존중, 협력, 상호이익, 지속가능”의 원칙하에 북극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북극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국의 지혜 및 역량을 발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밝힘. 또한 실무협력의 측면에서 북극 탐색 및 인식의 공동 심화, 북극이 직면한 생태환경상의 도전에 대한 공동 대응, 북극의 아름다운 미래 공동 건설 등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였음.

이번 포럼은 “중국과 북극”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빙상실�크로드, 과학과 혁신, 항로와 투자, 지속가능한 발전, 해양, 에너지, 거버넌스 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토론 및 교류가 이루어졌음. 포럼에는 중국, 아이슬란드, 미국, 캐나다, EU,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일본, 한국, 인도 등 북극국가 및 역외국가의 북극대사, 주중 외교관, 국내외 전문가 및 학자, 기업가, 북극 원주민 대표 등 약 500명의 인사가 참가하였음.

(<http://www.pric.org.cn/detail/News.aspx?id=c5c70fcc-1463-469b-a6c4-0a4ff20cce3b>)

(<https://www.yidaiyilu.gov.cn/xwzx/dfdt/89740.htm>)

북극소식

북극국가 정책



중국

주 영국 중국대사관 마후이 공사, 영국 의회에서 중국의 극지정책 설명 (2019. 5. 15.)

5월 14일 주 영국 중국대사관의 마후이(马辉) 공사는 영국의회의 초청을 받아 중국극지정책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영국의회 극지소그룹 대표의 진행 하에 의회 상원의원, 외교부 극지업무관, 영국 과학기술기금회 부주임,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자 등 정부, 의회, 학계, 상공계 인사들과 미국,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등 주 영국 각국 대사관들의 외교관 50여명이 참석하였음.

마후이 공사는 중국의 북극 및 남극업무 참여 역사를 소개하고 극지사업상의 기본입장과 정책적 입장을 발표하였음. 또한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가이자 극지업무의 주요 이해당사국으로서 평화와 협력, 존중, 상호이익, 공동통치, 지속가능성 등의 기본원칙과 이념 하에 극지에 대한 인식 및 보호, 이용, 관리 등의 측면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였음.

마후이 공사는 또한 북극항로개발 및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호, 중국의 5개 남극과학탐사기지 건설, 러시아와의 에너지개발협력 등의 문제에 관한 참석자들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하였음.

의회 발표 참석자들은 마후이 공사의 보고 내용에 신뢰를 표명하였으며, 이번 발표를 통해 중국의 극지정책에 대한 이해가 제고된 것으로 평가됨. 참석자들은 중국이 북극사업에 참여하여 발휘하게 될 긍정적인 역할에 환영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음.

(<https://www.fmprc.gov.cn/ce/ceuk/chn/dssghd/t1664055.htm>)

북극소식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토탈 사, 노바텍 사의 무르만스크와 캄차카 천연가스터미널 투자 검토 (2019. 4. 19)

프랑스 정유회사 토탈(Total)은 러시아 노바텍(NOVATEK) 사가 추진 중인 무르만스크(Murmansk)와 캄차카(Kamchatka) 천연가스 환적터미널에 투자할 것이라고 파트리크 푸야네(Patrick Pouyanné) 토탈 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푸야네 회장은 <북극 LNG-2> 프로젝트 투자 외에도 무르만스크와 캄차카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아울러 토탈 사는 노바텍 사의 주주로서 터미널 지분의 10%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노바텍이 구상 중인 천연가스 환적 및 2개의 저장 터미널 중 하나는 무르만스크 주 우라만(Ura Bay)에 건설 예정이며, 연간 2천 만 톤의 가스를 환적할 수 있음. 또한 캄차카에 건설될 터미널 또한 연간 2천 만 톤에서 최대 4천 만 톤의 가스를 처리할 수 있음.

(<https://ru.arctic.ru/news/20190419/846978.html>)

노바텍, 중국 기업들의 '북극 LNG-2' 프로젝트 협약 체결 (2019. 4. 26)

노바텍(NOVATEK) 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의 자회사 <중국석유가스탐사개발공사(CNODC)>와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 2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음. 중국 측은 각각 <북극 LNG-2> 지분의 10%를 받게 되었음. 협약 체결은 레오니드 미헬슨(Leonid Mikhelson) 대표이사가 국제 포럼 차 방문한 중국 베이징에서 이뤄졌음.

미헬슨 대표이사는 CNODC와의 협약 체결이 <북극 LNG-2> 사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자 CNPC와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지속을 의미한다며, 과거 <야말 LNG> 생산량의 초과 달성 경험은 새 공동 프로젝트 성공에 중요한 밑거름이라고 높이 평가하였음. 또한 CNOOC 측에도 “<북극 LNG-2> 사업에 있어 중국은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이 기쁘며, 러시아의 축적된 파이프 건설기술, 물류운송 모델, 풍부한 가스 매장량은 사업성공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아끼지 않았음.

<북극 LNG-2> 사업은 우트렌네예(Utrenneye) 가스전을 기반으로 연간 660만 톤 규모의 3개 중력식 천연가스 생산라인 건설을 계획하고 있음. 2018년 12월 31일 기준 석유자원관리체계(PRMS)기준 추정매장량은 천연가스 1조 1,380억 입방미터, 석유 5,700만 톤을 기록하였음(러시아 기준: 천연가스 1조 9,780억 입방미터 / 석유 1억 5백만 톤)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Novatek_podpisal_soglasheniya_s_kitayskimi_kompaniyami_po_proektu_Arktik_SPG_2/)

북극소식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소브콤플로트 사, 3개 국제 은행과 2억 9,700만 달러 투자 협약 체결 (2019. 5. 14)

소브콤플로트(Sovcomflot)사는 최근 3개의 국제적 규모 은행인 ING 은행(네덜란드), KfW-IFEX 은행(독일), 크레디 아그리콜(Crédit Agricole Corporate and Investment Bank, 프랑스)과 2억 9,700만 달러(한화 약 3천 5백 3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하였음. 투자금은 17만 4천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저장할 수 있는 “애틀랜틱 맥스 (Atlantic Max)”급 가스운반선 2척 건조에 투입될 예정이며, 향후 장기계약 구매자인 셸 (Shell) 사에 2020년 하반기에 인도작업이 완료 될 예정임. 해당 가스운반선은 이중연료 저속엔진(X-DF)과 증발가스 부분재액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음.

2018년 11월 소브콤플로트 사는 토탈(Total) 사 납품 목적으로 동일한 급의 가스운반선 건조를 위해 해당 은행으로부터 이미 1억 4천 9백만 불(한화 약 1천 7백 7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니콜라이 콜레스니코프(Nikolai Kolesnikov) 소브콤플로트 재무이사는 “귀사와 국제적 규모의 은행들과의 협약 덕분에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해진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이 두 번째 계약은 소브콤플로트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신용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Gruppa_Sovkomflot_zaklyuchila_s_tremya_mezhdunarodnymi_bankami_kreditnoe_soglashenie_na_297 mln_doll/)

러시아, 북극 국제 관광열차 개통 (2019. 5. 16)

극동 투자유치수출진흥청(Far East Investment and Export Agency)은 독일 여행사 <레르니데 에를레프니스라이센(Lernidee Erlebnisreisen)>과 공동으로 러시아 북극지역 및 노르웨이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열차를 6월 5일 개통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열차 노선은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 출발-페트로자보츠크(Petrozavotsk)-켄(Kem)-무르만스크(Murmansk)-니켈 무르만스키(Nikel Murmansk, 이상 러시아)-시르케네스(Kirkenes)-오슬로(Oslo, 이상 노르웨이) 도착으로 구성되어 있음. 관광 프로그램에는 총 11일이 소요될 예정임.

레오니드 페투호프(Leonid Petukhov) 청장은 고객들은 노선 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및 백야를 비롯한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전문 요리사, 가이드, 통역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것이며, 현재 7개국(독일, 스위스, 노르웨이, 미국,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91명의 관광객들이 첫 시범 운행사업에 참여하였다고 언급하였음. 한스 엔베르딩(Hans Engberding) 레르니데 대표이사 또한 현재 유럽 및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전세열차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관광열차 수요가 2020~2021년에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음.

(<https://ru.arctic.ru/news/20190516/852209.html>)

북극소식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가즈프롬, 2023년 코빅틴스코예 가스전에서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으로 가스 공급 계획 (2019. 5. 16)

가즈프롬(Gazprom)의 계열사인 <가즈프롬 마이닝 이르쿠츠크(Gazprom Mining Irkutsk)> 안드레이 타타리노프(Andrey Tatarinov) 사장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2023년에는 코빅틴스코예(Kovyktinskoye) 가스콘덴세이트전과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 파이프라인을 연계하여 가스공급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해당 가스전은 이르쿠츠크 주(Irkutsk)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하 공화국(Sakha Republic) 소재 차얀딘스코예(Chayandinskoye) 가스전과 함께 <시베리아의 힘> 파이프라인 사업의 중요 기반으로 여겨지고 있음.

타타리노프 사장은 파이프라인 연계 프로젝트를 위한 종합적인 가스생산시설 구축을 2022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계획하였으며, 2023년부터 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여 2025년에는 250억 입방미터까지 공급량을 증가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음. 현재 해당 가스전 지대에 첫 시추작업이 2019년 가을로 계획되어 있으며, 약 500여개의 유정을 추가적으로 건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타타리노프 사장은 투자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파이프 연계를 제외 두 가스전의 설비투자 금액은 6천억 루블(한화 약 11조원)로 평가되었다고 밝혔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Nachalo_postavok_gaza_s_Kovykty_v_Silu_Sibiri_zaplanirovano_na_2023_god/)

가즈프롬, 야말 대륙붕에서 가스전 발견 (2019. 5. 20)

러시아 연방지하자원청은 최근 가즈프롬(Gazprom) 사가 최근 야말 반도 대륙붕에서 발견한 두 개의 가스전인 바실리 딘코프(Vasiy Dinkov)와 나르메이스코예(Nyarmeiskoye)의 매장량을 조사한 국가매장량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발표하였음.

바실리 딘코프 가스전은 카라 해(Kara Sea) 루사놉스코예(Rusanovskoye) 면허생산지대에 위치하며 예상매장량은 3천 9백 7억 입방미터로 추산되고 있으며, 나르메이스코예 가스전은 1천 2백 8억 입방미터의 추정치를 기록하고 있음.

가즈프롬 사는 2013년 해당 지역의 생산면허를 취득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5,790제곱킬로미터의 지질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년에는 두 개의 탐사용 유정을 설치한 바 있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Gazprom_otkryl_na_shelfe_YAmala_dva_novyykh_mestorozhdeniya_c_summarnymi_zapasami_gaza_bolee_500_mld/)

북극소식

북극비즈니스/북극해항로/자원개발



사하 공화국, 일본 투자자의 날 행사 개최 (2019. 5. 14)

일본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 산하 홋카이도경제산업국, 홋카이도 은행(Hokkaido Bank)과 지역 비즈니스 대표단은 5월 14일 사하 공화국(Sakha Republic) 수도 야쿠츠크(Yakutsk)에서 개최된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설명회를 주최한 알렉세이 스트루치코프(Aleksey Struchkov) 사하 공화국 행정부 제1 부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의 정상회담, 아이센 니콜라예프(Aysen Nikolayev) 사하 공화국 정부수반의 러-일 주지사 간 북극지역 에너지 분야 협력회의 참석 사례를 거론하며, 양측의 효율적이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기반 구축에 대해 일본 측에 감사를 표했음.

투자 세미나에서는 공화국 내 첫 온실농공단지인 〈사유리(Sayuri)〉 프로젝트를 비롯한 농업 분야 투자협력이 논의된 바 있음. 더불어 스트루치코프 부대표는 고체폐기물 처리, IT분야 협력과 매머드 화석연구센터 건립 등 공화국 내 협력사업의 높은 잠재력을 강조하였음. 제1 부대표는 또한 무역량 증가 또한 중요과제 중 하나임을 언급하며, 2018년의 수입지표가 2017년 대비 2.5배 상승했음을 거론하기도 하였음.

아울러 세미나에서는 공화국이 달성한 2018년 러시아 연방 전체 20위, 극동연방관구 내 2위, 에너지 및 원료제외 상품수출량 연방 전체 5위 수출량 보고가 발표되었고, “야쿠티아 항공(Yakutia Airlines)의 일본 노선 개발 전망”, “칸갈라시(Kangalassy) 2.0 산업단지 내 보석세공 클러스터 조성”, “내륙 수운 선단 역량 개선 및 현대화 사업” 등의 분야별 프로젝트 또한 발표 및 논의되었음.

(http://www.arctic-info.ru/news/ekonomika/YApontsam_predstavili_yakutskie_investitsionnye_proekty/)



일본 해상자위대, 남극관측선 철수 검토 (2019. 4. 28.)

일본 해상자위대가 인력부족으로 남극 관측선 운용 임무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일본 남극 관측선 '시라세'는 1965년부터 약 180명의 연구자 등 관측 대원을 태우고 5개월에 걸쳐 매년 일본과 남극을 오가고 있음. 하지만 최근 일본 내 저출산으로 해상자위대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북한과 중국 경계 감시 강화 임무까지 늘어나자 남극관측선 운용을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임.

해상자위대가 철수하게 되면 일본의 극지연구소나 해양연구개발기구 등이 남극 관측선을 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해상자위대는 대원 부족 현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척당 운용 인력이 훨씬 적은 초계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자동화 및 무인화가 가능한 선박의 도입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sankei.com/life/news/190428/lif1904280046-n1.html>)

스웨이트츠(Thwaites) 빙하와 해수면 상승 상관관계 규명 공동연구 (2019. 5. 13.)

'서남극 스웨이트츠 빙하 돌발 붕괴가 유발하는 해수면 상승 예측 연구'에 미국과 영국을 비롯해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참여할 예정임. 2022년까지 총 800억원이 투입되는 남극 연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공동 연구로 이번 연구를 통해 남극 빙하 붕괴에 따른 해수면 상승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 대상 지역인 서남극 스웨이트츠 빙하는 지난 4년간 남극에서 가장 빠르게 녹아 이미 붕괴가 시작된 곳임. 얼음 바닥이 해수면보다 낮아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이 쉬워 빙하가 잘 녹는 환경에 처해 있었음.

많은 과학자들은 서남극 빙상을 지탱하는 스웨이트츠 빙하의 얼음이 빠르게 녹게 되면 독이 무너지듯 상류의 대륙빙하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었음.

해마다 남극 전체에서 사라지는 1,300억톤의 얼음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서남극에서 나온 것으로 관측되며, 서남극의 빙상이 전부 녹으면 지구의 평균 해수면이 5.2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이번 연구에는 무인 잠수정을 비롯하여 최첨단 과학장비가 사용될 것으로 알려짐.

(<https://interactive.pri.org/2019/05/antarctica/doomed-glacier-race.html>)



남극에서 북극까지 항해하는 노르웨이 크루즈 상품 출시 (2019. 5. 24.)

노르웨이의 새로운 메가 요트인 'SeaDream Innovation'호가 2022년 2월부터 남극과 북극을 한 번에 항해할 수 있는 크루즈 상품에 투입되어 운항될 예정임.

세계 최남단 도시인 아르헨티나 우수아이아(Ushuaia)에서 출항하는 88일 간의 항해는 대서양을 건너 유럽으로 가기 전에 남극을 둘러 본 후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4월 하순 백야에 스텔바르까지 항해하는 코스임.

'SeaDream Innovation'호는 220명의 승객을 수용할 수 있으며, 110개의 스위트룸과 200명의 승무원이 탑승할 수 있음.

북극해를 항해하는 이번 크루즈는 새로운 아이스 클래스 선박으로 건조 중에 있으며, 점차 높아지는 북극관광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많은 크루즈들이 북극해 항해가 가능한 선박으로 건조되고 있음

(<https://thebarentsobserver.com/en/travel/2019/05/just-case-you-have-extra-eu146000-hand-why-not-book-suite-board-pole-pole-cruise>)

중국 극지과학탐사 쇄빙선 웨룽2 호, 경사시험 완료 (2019. 5. 24.)

5월 24일 오전 중국이 최초로 자체 건조한 극지과학탐사 쇄빙선 “웨룽2”(雪龙2)호에 대한 경사시험이 완료되었음. 측정 결과 무게중심과 안정성의 측면에서 설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됨.

이번 경사시험은 5월 23일 저녁에 시작되어 5월 24일 오전에 종료되었음. “웨룽2” 프로그램의 건조 기관인 자연자원부 중국극지연구센터와 선급 협회, 세부 설계기관, 감리 등 관련 인사들은 조선소 종합조직이 전 과정에 참여하였음.

《2008 IS Code》에 따르면 새로 건조된 선박은 반드시 경사시험을 거쳐야 하며 선박의 실제중량 및 무게중심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 “웨룽2”호에 대한 경사시험은 순조롭게 마무리되었으며 선박 건조의 중요한 기술변수에 대한 검증을 통해 후속 선박항행시험 전개 및 기타 관련 시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막바지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함.

“웨룽2”호는 5월 31일부터 12일 간의 선박항행시험을 치르게 될 예정임.

(<http://www.pric.org.cn/detail/News.aspx?id=3635251d-54e9-4440-accf-1d27030f697b>)

이슈분석

아이슬란드, 북극이사회 2021년 의장국 프로그램('19~'21) 공식 발표

지난 5월 6~7일 양일 간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가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개최되었다.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는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의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과 6개 원주민 상시참여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명실상부한 북극이사회 내 최고위급 의사결정회의이다. 1996년 북극이사회가 설립된 이후 매년 2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2년 간 임기를 마치는 의장국이 이뤄낸 성과와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신입 의장국의 사업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또한 제11차 각료회의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유일하게 신규 옵서버로 승인되었고, 북극이사회와 북극경제이사회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제11차 북극이사회 각료회의를 통해 아이슬란드가 북극이사회 의장국의 지위를 핀란드로부터 승계 받아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 향후 2년간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북극 사업과 협력을 이끌어 갈 의장국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선보였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을 주요 경제기반으로 삼고 있는 해양강국이며, 세계에서 첫 여성 수상을 선출한 세계성평등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10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양성평등 국가이다, 또한 전력을 100% 수력과 지열에너지 등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여 세계 친환경에너지 이슈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친환경에너지 국가이다.

이러한 강점을 기반으로 아이슬란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 하에 '북극해양환경',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북극주민과 사회', '북극이사회 기능강화'를 의장국 재임 기간인 향후 2년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¹⁾

첫째, 북극해양환경(Arctic Marine Environment)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과 연안 생태계 모니터링, 평가 및 보호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① 해양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지역 실천계획(Regional Action Plan)'의 수립, ② 해양플라스틱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 개최(2020. 4월 예정), ③ 북극 생물자원의 잠재력을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블루 바이오이코노미' 계획 추진, ④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에서의 해운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수색과 구조, 예방과 대응을 위한 효율적인 협력 추진, ⑤ 북극해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세계기상기구(WMO)와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게 된다.

둘째, 기후와 녹색에너지 솔루션(Climate and Green Energy Solution)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후가 북극 해양, 담수 및 육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과 평가를 수행하고, 2021년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카비크에서 개최 예정인 제12차 북극각료회의에서 북극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 감소를 위한 블랙카본과 메탄 워킹그룹(EGBCM) 활동 등을 장려할 계획이다. 나아가 북극사회 녹색에너지 개발과 적용,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셋째, 약 400만으로 추정되는 북극 거주민들의 복지와 북극사회의 성장을 북극이사회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보호와 북극사회 참여를 전제로 해운, 관광, 통신 등의 신산업 경제 기회를 활용하고, 특히 북극 주민들의 디지털 경제 참여 확대를 위해 북극경제이사회와 밀접한 협력을 통해 '연결성(connectivity)'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북극에서의 양성평등(gender equality)에 대한 논의를 장려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 간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1) 이하의 내용은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Iceland's Arctic Council Chairmanship 2019-2021')은 KMI 극지연구소가 북극이사회 공식 프로그램을 번역해 소개한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2019.5.13.)과 KMI 동향분석 제120호의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이슈분석

넷째, 북극이사회의 주요 동력이었던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상시참여자들(Permanent Participants)간 밀접한 협의를 지속하고, 옹서버와의 상호 호혜적인 공조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북극이사회와 북극이사회 간 신규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책임 있는 경제개발 장려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 2019-2021년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

주제	'Together Towards a Sustainable Arc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 감소를 위한 '지역실천계획' 수립 - 해양플라스틱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 북극에서의 '블루 바이오이코노미' 사업 추진 -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북극 해상 운송 증진 - 세계기상기구(WMO)와의 협력 강화 등 환극지 기상·해양협력 추진
중점 분야	북극해양환경
	기후 및 녹색 에너지 솔루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가 북극 해양·담수·육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찰 및 평가 지속 - 북극 기후변화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서 발간 - 단기수명가스 배출 감축 노력 지속 - 북극에서의 녹색에너지솔루션 개발 및 실용화 장려
	북극주민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발을 환경보호 및 사회통합과의 연계성 강화 - 북극경제이사회와의 협력하여 통신망 개선 노력 지속 - 양성 평등 관련 논의 장려 사업 추진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크 강화
	북극이사회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극이사회 회원국과 상시참여단체 간 긴밀한 협의 지속화 - 옹서버와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기회 모색 - 책임 있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북극경제이사회와의 협력 강화

자료: Arctic Council, 'Iceland's Arctic Council Chairmanship 2019-2021', 2019.05.

이처럼 아이슬란드는 핀란드 재임 기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북극환경보호, 통신 및 연결성, 기상협력, 교육 등 4대 중점 사업의 성과를 확산함과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옹서버와의 협력, 블루 바이오이코노미, 해양플라스틱 등의 세부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북극이사회와의 협력은 북극옹서버 국가로서 우리나라 북극정책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이다. 향후 아이슬란드 북극이사회 의장국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와 협력의제 발굴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북극이사회 각료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으로 1996년 북극이사회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동선언문 채택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기후변화의 땅 북극에서 기후변화 논의가 제한되는 모순적 상황이 아이슬란드 재임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2021년 제12차 각료회의의 공동선언문 또한 채택될지 미지수다. 북극이사회를 중심으로 북극 거버넌스의 향방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김민수 부연구위원
김지혜 전문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극지e야기(KPoPS)는 북극과 남극의 사회, 경제, 인문, 자연, 원주민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최신 동향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극지정보포털입니다.

<http://www.koreapolarportal.or.kr/>

KMI 극지연구센터 페이스북은 북극 및 남극과 관련된 해외 주요 최신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KMI 극지연구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kmipolar/>